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3) : 471~488, 2015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6(3) : 471~488, 2015
<http://dx.doi.org/10.7856/kjcls.2015.26.3.471>

남녀 귀농인 결혼만족도 결정요인 연구: 귀농특성,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김 백 수 · 이 정 화[†]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생활과학연구소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le and Female Rural Migrants: Migrant Characteristics and Family Values

Beagsu Kim · Jeonghwa Lee[†]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le and female rural migrants and explores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rural migrants and family values on marital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rvey included 483 migrants living in rural communities of North Jeolla Province and South Jeolla 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les, the t-test, correlations,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According to the results,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in men than in women. In addition,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rural migrants and family values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greater in men than in women. The major determinant of marital satisfaction in men was economical preparation, whereas that in women was family values. Economical preparation for rural living was more important for men, and the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internalization of rural living was more important for women. In particular, family values represented the main variable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marital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amily relationships may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rural migrants' marital satisfaction and that spousal relationships may be the core factor influencing family relationships.

Key words: rural migrants, family values, migrant characteristics, marital satisfac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Korea (KRDA-2012).

접수일: 2015년 4월 8일 심사일: 2015년 6월 29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21일

[†]Corresponding Author: Jeonghwa Lee Tel: 82-62-530-1326 E-mail: jyh0222@daum.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산업화 이후 인구이동은 농촌의 배출요인과 도시의 흡입요인이 맞물려 일어난 이촌향도가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생태 지향적 삶에 대한 추구, 도시 지역에서의 취업기회 감소와 실직증가, 미래 농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3)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은 2014년 44,586가구로서, 2004년에 1,302가구였던 것에 비해 34배 이상 증가했고, 2013년의 32,424가구에 비해서도 1.4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추세는 향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5).

도시민의 농촌이주 형태는 영농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귀농과 귀촌으로 구분된다.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귀농인은 인구과밀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침체된 농산업 활성화, 사장되는 전통문화 계승, 농촌사회 활력 상승,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귀농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Kim 2009) 귀농가구 지원정책도 가족단위 이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귀농인은 농촌으로 이주한 후 새로운 생활양식 습득, 주거 및 영농기반 시설 마련 등 적지 않은 부담을 경험하는데 이때 가족이 제공하는 정서적 안정·휴식·오락과 같은 기능은 이들의 적응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Moore 1971). 따라서 귀농인이 농촌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실제로 귀농인 대상 선행연구들에서는 귀농인 중 상당수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해결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Lee 1998; Park 2006).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가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불만족스럽고 갈등이 많은 부부관계

는 가정문제의 원인이 되며,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가족해체와 사회병리 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Litzinger & Gordon 2005). 귀농인 대상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지지가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Kim et al. 2011), 잘 적응한 귀농부부가 가진 강점으로 아내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다(Lim 2012).

그러나 지금까지 귀농인의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귀농인에 대한 사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엄연히 특성이 다른 귀농가구와 귀촌가구를 통합해 분석한 연구,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서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탐색적으로 접근한 질적연구가 몇 개 있으나 부부관계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귀농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귀농인의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이 연구되었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기혼 귀농인에게 있어서 이들의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부부관계, 결혼만족도라는 점에서 생활만족도,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에는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이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고 건강하며 결혼지속기간이 짧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건강과 같은 기본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귀농관련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귀농지에 부모, 친척, 친구 등과 같은 '거주지 자산'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빠른 적응을 한다는 연구(Davanzo & Peter 1981)가 있는 반면 남편고향으로 이주하게 된 여성에게는 '큰 며느리 역할'이 부과되어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Jeong 2007; Sung 2013). 어느 지역으로 이주했는지, 그 곳이 부부 중 누구의 고향인지,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등의 귀농유형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귀농인의 이주준비 정도, 이주자금은 귀농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Park et al. 2007) 이러한 귀농관련 다양한 특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 규범원리로서,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모든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다(Kim 2002).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하거나 보다 전통적인 경우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는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가능성을 높여 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Kim 1985; Park 1993)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귀농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라라도 결혼만족도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까지 귀농현상과 관련되어 연구되지 않았던 귀농인 남녀의 귀농관련 특성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기혼 남성귀농인과 여성 귀농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귀농인의 결혼만족도 결정변수들의 남녀차이와 그 배경에 대한 해석, 그리고 더 나아가 귀농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귀농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귀농관련 특성, 결혼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이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귀농관련특성, 가족주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들 변수군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상대적 영향력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봄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결정변인의 차이를 탐색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귀농인과 결혼만족도

귀농·귀촌가구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시 6,409 가구로 일시 증가했으나 그 후 다시 1,000가구 내의

의 정체기를 거쳐 2009년을 4,080가구를 기점으로, 2011년 10,503가구, 2012년 17,008가구, 2013년 32,424가구, 2014년 44,586가구로 급격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5). 이러한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정책도 많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홈페이지에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고 있는데 귀농은 '농촌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귀촌은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지만,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영농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최근 자치단체의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귀농인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해당 군 또는 면지역에 가족과 함께 전입한 후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영농을 목적으로 가족 중 최소 배우자를 포함해 농촌으로 전입한 후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귀농이라 하고, 이러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본 연구는 귀농인이 농촌에 적응하는데,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가족관계의 핵심인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온 두 사람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 계승하여 적응해 가는 관계이다(Jung & Kim 2010). 결혼 후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한 정도, 상호간 적절한 조화와 균형점 및 동일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달라진다. 결혼만족도는 단순하게는 부부 상호간에 대한 기대충족 정도를 의미하지만(Rice 1979) 일반적으로는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 부부 및 가족간의 애정,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자녀의 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사회적인 성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Hawkins 1968). 때문에 결혼 만족도는 결혼 적응, 결혼 안정성, 결혼 행복, 결혼의 질 등으로 다양한 용어로 연구된다(Beach et al. 2003). 일반적으로 부부간 높은 결혼만족도는 부부를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뛰어난 완충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불만족한 결혼생활로 신체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상태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Lee 2004). 따라서 익숙한 도시생활을 뒤로하고 농촌으로 이주한 남녀 귀농인 경우 농촌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귀농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귀농인의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가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의 중요요인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Park et al. 2007; Kim 2009; Kim et al. 2011). 구체적으로, 귀농인이 농촌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 하는 데에 가족관계의 중요성(Lee 1998)이나 배우자의 지지(Kim et al. 2011)가 강조되어왔고, 귀농초기 귀농인에게 '배우자의 이해 부족'(Kim et al. 2004)이 어렵다는 연구결과들은 귀농인에게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귀농인의 부부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귀농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귀농인의 결혼만족도 관련요인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사회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귀농관련 선행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사용된 주요 변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동거가족 수, 귀농 이전 직업 등이 포함된다(Lee 1998; Kim 1999; Park 2006; Park et al. 2007; Park 2008; Lee 2010).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성에 따른 차이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서구나 우리나라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5, 2010; Statistics Korea 2010).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3). 이는 결혼에 거는 기대에 대한 성차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을 더 중요

하게 생각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나 환상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귀농인의 경우 농촌에서의 삶은 영농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더하여 남녀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들 중 귀농을 원하지만 '고된 농사일'에 대한 걱정으로 63.7%가 귀농을 못하고 있다(Kim et al. 2004).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업노동 비중이 매우 높아 과도한 노동에 참여해야 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등이 농촌생활에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불만이 커지는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Yang 1996; Cha 2002; Lee & Lee 2004). 이러한 배경에서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귀농에 적극적이며, 귀농을 원하는 비율도 높다. 이러한 차이는 결혼만족도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고,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차 외에도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차이를 보이는데, 교육수준, 직업지위, 소득, 건강, 연령 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등은 결혼만족도와 정적관계를 나타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한다(Choi 2014). 안정적인 직장과 건강을 지니고 생활유지에 적절한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것은 결혼생활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부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결혼만족도와 정적관계에 있으며(Choi 1998; Yang 2003) 연령은 부적관계(Oh 1997; Choi 199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배경 변인외에 귀농관련 특성변인 역시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귀농관련 특성변인으로는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귀농유형, 이주자금, 귀농 준비기간, 농번기 영농활동 시간, 경작유형, 귀농동기 등을 주로 탐색하였다(Lee 1999; Lim 1999; Kim 2013; Kim & Lee

2013a; Park 2006; Park 2008).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귀농관련 특성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이러한 귀농관련 특성변인은 귀농인이 농촌에 적응해서 생활하는데, 그리고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귀농유형은 출생지와 귀농지를 기준으로 U-turn, J-turn, I-turn으로 구분하는데 U-turn은 농촌에서 출생해 도시에 살다가 고향농촌으로 귀농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J-turn은 농촌에서 출생해 도시에 살다가 타향농촌으로 귀농한 경우를 의미하며, I-turn은 도시에서 출생해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Woo(1997)가 출생지와 귀농지에 근거하여 귀농형태를 구분한 것이다. 귀농유형 U-turn은 J-turn이나 I-turn에 비해 농촌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1998; Lim 1999; Park 2006; Park 2008).

이주자금은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주거, 농지, 영농을 위한 시설 마련, 재배작물 구입, 농기계 마련을 위한 자금까지를 포함하는데 농촌사회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계형 귀농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2~3년 동안의 생활자금에 대한 준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어(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이주자금의 충분정도와 규모는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귀농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역시 귀농인의 농촌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귀농현상과 맞물려 지자체는 귀농관련 예비교육과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귀농 예비생들의 귀농준비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귀농준비 기간은 농촌사회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탐색되었다(Lee 1998; Park 2006). 마찬가지로 이는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귀농특성 중 농번기 하루 영농활동 시간 역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포함시켰다. 영농활동 시간은 귀농의사가 있는 도시민이 귀농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고(Kim et al. 2004), 특히

가사와 농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에게는 역할과 중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Yang & Yoo 2002)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귀농배경에는 '영농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또는 '향후 농산업을 위한 밝은 전망'에서 귀농하는 경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2). 이에 귀농인은 과거와 달리 농산업을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귀농인이 농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선택한 작목이나 경작유형에 따라 농업노동강도가 달라져 이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경작유형을 귀농관련 특성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선택 그리고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개체가 가족이고 그 가족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곧 가족주의 가치관이다(Kim 1998). 현대사회에서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가족을 위주로 하는 집합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을 위한 가족이라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Kim et al. 2004) 가족가치관에 내재된 가족주의 가치관은 한국인의 행동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Seo 1998). 특히 가족주의 가치관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질 때, 결혼생활에 더 만족한다고 한다(Kim 1985; Park 1993; Kim 2002). 가족을 개인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에 우선해서 가족의 이익을 구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귀농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Lee 1998; Park 2006) 귀농인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녀 귀농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지 10년 이내 된(2003년~2012년) 귀농인 중 배우자와 함께 이주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는 2012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라도(전남, 전북)지역의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 성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예비조사 실시 후 설문지 수정 및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 후 귀농·귀촌담당 행정기관과 공무원 및 귀농학교 등에서 소개받은 귀농인을 연구원이 직접 방문, 설문에 협조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전남·북 소재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담당 공무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이를 수락한 경우 설문지를 송부하여 회수 받는 형태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이었다. 설문지는 총 700부를 면접 혹은 배포하였는데 이중 660부가 회수됐고, 부실 기재된 설문지, 영농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귀촌인, 결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후 최종 483부(100.0%)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330부(68.3%), 여성은 153부(31.7%)이다.

2. 주요변수의 구성과 내용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은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경제수준, 동거가족 수, 귀농이전 직업으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조사대상자의 현재 연령을 직접 기입하도록 했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이상으로 구분, 해당사항을 선택하도록 했다. 건강수준과 경제수준은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동거가족 수는 현재 농촌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한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했다. 귀농이전 직업은 전문직(의

사, 간호사, 약사, 법조인, 연구자, 연구원 등), 관리직(5인 이상 업체 부장이상, 5급 이상 공무원 등), 사무직(6급 이하 공무원, 과장급 이하 회사원, 하사관 이하 군인, 사회복지사 등), 생산직(가내 수공업, 생산직 노동자 등), 단순노무직(청소용역, 파출부 등), 영업직(각종 세일즈 등), 자영업(상업, 공업, 서비스업 등), 서비스직(요양사, 백화점 근무자 등), 학생, 전업주부, 무직, 기타(성직자, 시간강사 또는 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직업을 선택하게 했고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입하도록 했다.

2) 귀농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귀농관련 특성변인은 귀농유형, 이주자금, 귀농준비 기간, 농번기 영농활동 시간, 경작유형, 귀농 동기로 구성하였다. 귀농유형은 귀농인의 출생지와 귀농지를 중심으로 구분한 U-turn(농촌출생→도시거주→고향농촌), J-turn(농촌출생→도시거주→타향농촌), I-turn(도시출생→농촌)으로 구분하였고, 이주자금은 집과 농지구입 및 생활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일천만원미만, 1천만원-3천만원미만, 3천만원-5천만원미만, 5천만원-8천만원미만, 8천만원-1억원미만, 1억원-2억원미만, 2억원-3억원미만, 3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했다. 귀농준비 기간은 선행연구(Park et al. 2007)를 참조하여, 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구분해 조사했는데 조사 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농번기 영농활동 시간은 조사대상자가 농번기(봄-가을)에 하루 동안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직접 기입하도록 했다. 경작유형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2012)가 구분한 밭농사, 논농사, 하우스, 과수원, 축산 기타로 구분해 해당사항을 선택하도록 했고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규모를 기입하도록 했다. 귀농 동기는 Park(2006)과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2013)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했는데, 구체적인 항목으로, 농업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부모의 영농승계 때문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도시에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향후 농산업에 대한 밝은

전망 때문에, 농촌생활이 좋아서, 배우자가 귀농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타로 구분하였고,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을 기입하도록 했다.

3)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 척도는 Kim(1998)이 개발한 가족가치관 척도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주의 가치관 3문항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개인보다는 가족의 의견을 더 중시해야 한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가족은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남성 0.78이고 여성 0.71이다.

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Chung(1997)이 KMSS를 한국 사회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를 이용하였다.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배우자로서 아내(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아내(남편)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어머니(아버지)로서의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매우 불만족 한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남성 0.86이고 여성 0.79이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과 t-test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귀농특성, 결혼만족도, 가족주의 가치관 각 변수의 일반적 특성과 성차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귀농인의 결혼만족도가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귀농관련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표본을 나누어 각각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21.0을 사용했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은 남성 330명(68.3%), 여성 153명(31.7%)이다. 연령분포는 45세 미만이 남성 20.0%(66명), 여성 33.3%(51명), 45~55세 미만은 남성 44.2%(146명), 여성 45.8%(70명), 55세 이상은 남성 35.8%(118명), 여성 20.9%(32명)로 나타나 남녀 모두 45~55세 미만이 가장 많은 가운데 남성의 연령이 좀 더 많았다.

남녀 귀농인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남성 12.4%(41명), 여성 11.8%(18명), 고졸은 남성 44.5%(147명), 여성 58.8%(90명), 대졸이상은 남성 43.0%(142명), 여성 29.4%(45명)였다. 전반적으로 고졸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였고, 남성의 교육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

귀농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나쁜 경우는 남성 4.5%(15명), 여성 8.5%(13명)에 불과하였고, 보통이상인 남성 95.4%(315명), 여성 91.5%(14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귀농인의 현재 경제수준에 대해 남성은 나쁘다 18.8%(62명), 보통이다 67.0%(221명), 좋다 14.2%(47명)로 응답했고, 여성은 나쁘다 24.2%(37명), 보통이다 65.4%(100명), 좋다 10.5%(16명)로, 전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귀농인의 동거가족 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2명 39.7%(131명), 3명~4명이 41.2%(136명), 5명이상 19.1%(63명)이었고, 여성은 2명 39.2%(60명), 3명~4명 이하 41.8%(64명), 5명이상 19.0%(29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남녀 귀농인 모두 동거가족원 수가 3~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귀농이전 직업에서 남성은 자영업 42.1%(139명), 관리직 12.1%(40명), 사무직 12.1%(40명), 생산직

11.5%(38명) 순이었고, 여성은 전업주부 34.0%(52명), 자영업 24.8%(38명), 사무직 11.1%(17명), 생산직 7.8%(12명) 순이었다. 남성은 자영업, 여성은 전업주부 및 자영업의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 이러한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농촌으로의 이주를 더 많이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귀농관련 특성

남녀 귀농인의 귀농관련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Table 2와 같다. 귀농유형으로 U-turn은 남성 52.1%

(172명), 여성 43.1%(66명), J-turn은 남성 93명 (28.2%), 여성 45명(29.4%), I-turn은 남성 65명 (19.7%), 여성 42명(27.5%)였다. 남녀 귀농인 모두 농촌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많았고, 농촌경험이 있는 경우 중 고향농촌으로 이주한 경우가 타향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주자금은 5천만원미만이 남성 35.2%(116명), 여성 39.2%(60명), 5천만원~1억원 미만은 남성 32.1%(106명), 여성 28.8%(44명), 1억원~2억원 미만은 남성 19.7%(65명), 여성 24.2%(37명), 2억원이상은 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Variables	Category	Male	Female	Total
Age	Less than 45 years	66(20.0)	51(33.3)	117(24.2)
	45 years ~ less than 55 years	146(44.2)	70(45.8)	216(44.7)
	More than 55 years	118(35.8)	32(20.9)	150(31.1)
Education level	Less than a middle school degree	41(12.4)	18(11.8)	59(12.2)
	A high school degree	147(44.5)	90(58.8)	237(49.1)
	More than a college degree	142(43.0)	45(29.4)	187(38.7)
Health level	Bad	15(4.5)	13(8.5)	28(5.8)
	Normal	101(30.6)	55(35.9)	156(32.3)
	Good	214(64.8)	85(55.6)	299(61.9)
Income level	Bad	62(18.8)	37(24.2)	99(20.5)
	Normal	221(67.0)	100(65.4)	321(66.5)
	Good	47(14.2)	16(10.5)	63(13.0)
Number of family members	2	131(39.7)	60(39.2)	191(39.5)
	3~4	136(41.2)	64(41.8)	200(41.4)
	More than 5	63(19.1)	29(19.0)	92(19.0)
Former job in the city	Professional	13(3.9)	5(3.3)	18(3.7)
	Executive	40(12.1)	4(2.6)	44(9.1)
	Office worker	40(12.1)	17(11.1)	57(11.8)
	Engineer	38(11.5)	12(7.8)	50(10.4)
	Worker	4(1.2)	2(1.3)	6(1.2)
	Manager	33(10.0)	6(3.9)	39(8.1)
	Self-employed worker	139(42.1)	38(24.8)	177(36.6)
	Service worker	6(1.8)	6(3.9)	12(2.5)
	Homemaker	0(0.0)	52(34.0)	52(10.8)
	Unemployed individual	4(1.3)	2(1.3)	6(1.2)
	Other	13(3.9)	9(5.9)	22(4.5)
Frequency (number)		330	153	483
Percentage (%)		68.3	31.7	100.0

성 13.0%(43명), 여성 7.8%(12명) 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5천만원미만의 이주자금을 들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준비 기간은 6개월 미만인 남성 20.0%(66명), 여성 20.9%(32명), 6개월~1년미만은 남성 28.8%(95명), 여성 30.7%(47명), 1년~2년미만은 남성 18.2%

Table 2. Characteristics of rural migrants

		(Unit: N(%))		
Variables	Category	Male	Female	Total
Type of rural migrant ¹⁾	U-turn type	172(52.1)	66(43.1)	238(49.3)
	J-turn type	93(28.2)	45(29.4)	138(28.6)
	I-turn type	65(19.7)	42(27.5)	107(22.2)
Cost of rural migrants (₩)	Less than 50 million	116(35.2)	60(39.2)	176(36.4)
	50 million~Less than 100 million	106(32.1)	44(28.8)	150(31.1)
	100 million~Less than 200 million	65(19.7)	37(24.2)	102(21.1)
Preparation period	More than 200 million	43(13.0)	12(7.8)	55(11.4)
	Less than 6 months	66(20.0)	32(20.9)	98(20.3)
	6 months~ Less than 1 year	95(28.8)	47(30.7)	142(29.4)
	1 year~ Less than 2 years	60(18.2)	37(24.2)	97(20.1)
Farm work hours per day (spring to fall)	More than 2 years	109(33.0)	37(24.2)	146(30.2)
	Less than 6 hours	64(19.4)	53(34.6)	117(24.2)
	6 hours~10 hours	202(61.2)	76(49.7)	278(57.6)
Agriculture type*	More than 11 hours	64(19.4)	24(25.7)	88(18.2)
	Field farming	218(66.1)	116(75.8)	334(69.2)
	Rice paddy farming	160(48.5)	50(32.7)	210(43.5)
	Orchard	90(27.3)	32(20.9)	122(25.3)
	Greenhouse	68(20.6)	32(20.9)	100(20.7)
	Livestock	43(13.0)	27(17.6)	70(14.5)
Motivation of rural migrants*	Other	5(1.6)	2(1.2)	7(1.4)
	Like rural life	88(26.7)	33(21.6)	121(25.1)
	Want to live in a rural area after retirement	79(23.9)	25(16.3)	104(21.5)
	For the health of oneself and family	38(11.5)	32(20.9)	70(14.5)
	An agricultural professional	50(15.2)	11(7.2)	61(12.6)
	Spouse's preference	9(2.7)	32(20.9)	41(8.5)
	To take over agriculture from parents	30(9.1)	2(1.3)	32(6.6)
	Positive prospects for agriculture	20(6.1)	9(5.9)	29(6.0)
	Difficulty in finding employment in the city	9(2.7)	5(3.3)	14(2.9)
Other	7(2.1)	4(2.6)	11(2.3)	
Frequency (number)		330	153	483
Percentage (%)		68.3	31.7	100.0

1) Types of rural migrants include U-turn, J-turn, and I-turn types. These type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rural migrant's place of birth and residence. U-turn: the place of birth (rural) → city life →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rural migrant (hometown); J-turn: the place of birth (rural) → city life →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rural migrant (other rural areas); I-turn: the place of birth (city) →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rural migrant (rural).

* Multiple responses.

(60명), 여성 24.2%(37명), 2년이상은 남성 33.0%(109명), 여성 24.2%(37명)였고, 남녀 모두 6개월~1년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2년이상 준비한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많았다. 남성의 경우 2년이상 준비했다는 응답자가 1/3을 차지해서 남성들이 더 오랫동안 귀농을 꿈꾸고 준비하고 결국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번기 하루 영농시간은 6시간미만이 남성 19.4%(64명), 여성 34.6%(53명)이었고, 6시간~10시간이하는 남성 61.2%(202명), 여성 49.7%(76명)이었으며 11시간이상은 남성 19.4%(64명), 여성 25.7% (24명)이었다. 남녀 귀농인 모두 하루 6~10시간동안 영농활동을 하는 가운데 11시간 이상 농사일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이고, 이렇게 더 오랜 시간 일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귀농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귀농 후 여성이 감당하는 농업시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유형은 복수응답 결과이다. 남성은 밭농사 66.1%(218명), 논농사 48.5%(160명), 과수원 27.3%(90명), 시설하우스 20.6%(68명), 축산 13.0%(43명), 기타 1.5%(5명)였고, 여성은 밭농사 75.8%(116명), 논농사 32.7%(50명), 과수원 20.9%(32명), 시설하우스 20.9%(32명), 축산 17.6%(27명), 기타 1.3%(2명) 순이었다. 남녀 경작유형이 유사한 가운데 모두 밭농사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논농사가 기계화되고 소득원으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밭농사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귀농 동기로 남성은 '농촌생활을 좋아해서', '퇴직 후 농촌에서 살기 위해', '농업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순이었고, 여성은 '농촌생활이 좋아서', '배우자가 원해서',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해' 순이었는데 남녀 모두 농촌생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었고, 남성은 농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동기로, 여성은 농업 보다는 배우자의 희망에 부응하거나 가족의 건강 때문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동기로 귀농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주의 가치관

성에 따른 귀농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Table 3과 같다. 점수범위는 1~5점이고 중간점수는 3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 점수가 높을수록 비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문항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남성(M=2.04, SD=0.74)과 여성(M=2.08, SD=0.68) 모두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아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 결혼만족도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고 이 척도의 점수범위는 1~5점이다.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배우

Table 3. Family values

Variables	(Unit: Mean(SD))			
	Male (n=330, 68.3%)	Female (n=153, 31.7%)	Total (n=483, 100.0%)	t
Family members' opinions are more important than personal opinions.	2.18(.90)	2.03(.82)	2.13(.88)	1.7
Family's interest is more important than personal interest.	2.09(.87)	2.44(.90)	2.20(.89)	-4.0***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ersonal life.	1.86(.90)	1.76(.83)	1.83(.87)	1.16
(Total) Family values	2.04(.74)	2.08(.68)	2.06(.72)	1.65

*** p<.001.

자의 부모됨에 대한 만족도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3.86점(SD=0.83), 여성 3.69점(SD=0.90)이었고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3.66점(SD=1.01), 여성 3.41점(SD=0.99)이었다. 성에 따라 귀농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집단간 유의차가 있어($t=2.53, p<0.05$),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3.76점(SD=0.85), 여성 3.64점(SD=0.86)이었다. 배우자의 부모 됨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3.68점(SD=0.86), 여성 3.60점(SD=0.88)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보았을 때,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배우자의 부모됨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에 따른 유의치는 없었다. 전체 결혼만족도는 남성 3.74점(SD=0.74) 여성 3.59점(SD=0.71)이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혼이 남성에게 보다 유리한 사회제도이고, 남성은 일과 가족 중에서 보다 일 중심인 반면, 여성은 가족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결혼에 만족하는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2.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귀농관련 특성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력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

펴보고자 한다. Table 5는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1단계로 모델 1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단계인 모델 2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고도 귀농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인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가족주의 가치관을 추가 투입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성, 귀농관련 특성을 통제하고도 가족주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설명력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이 독립변수간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볼 수 있다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이에 더하여 각 변수군의 추가 설명력과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가 0.6이하로 낮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델 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경제수준, 동거가족 수가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모델 II에서는 모델 I에 귀농관련 특성인 귀농유형 1(U-turn과 J-turn), 귀농유형 2(U-turn과 I-turn), 이주자금, 귀농준비 기간, 농번기 영농활동 시간을 추가하여 분석했고 모델 III에서는 모델 II에 가족주의 가치관 변인을 추가 투입하였다.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모델 I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17%로

Table 4. Marital satisfaction

(Unit: Mean(SD))

Variables	Male (n=330, 68.3%)	Female (n=153, 31.7%)	Total (n=483, 100%)	t
Satisfaction of the spouse	3.86(.83)	3.69(.90)	3.81(.85)	2.09*
Satisfaction with marriage	3.66(1.01)	3.41(.99)	3.58(1.01)	2.53*
Satisfaction with the spousal relationship	3.76(.85)	3.64(.86)	3.72(.85)	1.37
Satisfaction with the spouse's parents	3.68(.86)	3.60(.88)	3.65(.87)	.85
Marital satisfaction	3.74(.74)	3.59(.71)	3.69(.74)	2.17*

* p<.05.

나타났다($F=12.98$, $p<0.001$). 경제상태 변인($\beta=0.25$, $p<0.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건강수준($\beta=0.19$, $p<0.001$), 교육수준($\beta=0.13$, $p<0.05$) 순이었다. 즉 남성은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모델 I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갖는 설명력이 6%였으며 이 모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개인이 가진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갖는 영향력은 남성과 여성이 매우 다름을 의미한다. 남성은 자신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자신의 건강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능하는 교육수준, 경제상태 그 아무것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아닌, 배우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보다 복합적인 다른 결정요인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모델 II는 모델 I에 귀농관련 특성 변인들을 추가 투입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투입된 변인 중 결혼만족도에 귀농준비 기간($\beta=0.12$, $p<0.05$)의 영향력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귀농준비 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준비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귀농인으로서 농촌 및 농업에의 적응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긴 준비기간은 적응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촌생활과 영농활동에서의 안정이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귀농관련 특성은 전체 설명력에 추가설명력을 3% 더했다. 여성의 경우, 추가 투입된 귀농관련 특성 변인 중 귀농유형 I(UJ)($\beta=-0.21$, $p<0.05$)과 이주 자금($\beta=0.20$, $p<0.05$)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귀농인은 고향으로 귀농한 경우가 타향으로 귀농한 경우에 비해, 그리고 이주자금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향의 부모나 친인척 등 기존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 그리고 주거시설이나 영농 기반시설, 생활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이주자금이 많아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한 경우, 이는 여성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귀농관련 특성의 추가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 가족주의 가치관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이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남성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이 개인에 우선하는, 가족중심적인, 보다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에 가족주의 가치관이 갖는 추가 설명력은 2%, 모델 III의 전체 설명력은 22%($F=7.78$, $p<0.001$)가 되었다. 귀농인 여성의 경우, 모델 II에 가족주의 가치관 변인을 추가 투입한 결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여성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여성 귀농인도 보다 가족중심적인 가족주의가치관을 지닐수록 결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 II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변수들보다 더 큰 값으로 영향을 미쳐, 가족주의 가치관의 추가 설명력은 4%여서 총 설명력은 15%($F=2.13$, $p<0.05$)가 되었다. 남성귀농인과 여성 귀농인 모두 가족주의 가치관이 보다 전통적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이 결과는 남녀 모두 개인보다 가족중심의 생활태도가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다 배려하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I을 중심으로 귀농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경제수준($\beta=0.24$, $p<0.001$), 건강수준($\beta=0.14$, $p<0.05$), 귀농준비 기간($\beta=0.14$, $p<0.05$), 가족주의 가치관($\beta=-0.14$, $p<0.05$), 교육수준($\beta=0.11$, $p<0.05$) 순이었다. 이는 남성의 경우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귀농준비 기간이 오래일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인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가족주의 가치관($\beta=-0.20$, $p<0.05$), 귀농유형 2(UI)($\beta=-0.19$, $p<0.05$), 이주 자금($\beta=0.18$, $p<0.05$)

순이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I턴 형에 비해 U턴 형인 경우, 이주자금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성 귀농인은 귀농 후 농촌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인적, 물적, 신체적 자원이 확보된 경우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개인보다 가족중심의 가치관, 사회적 유대의 토대가 되어있어 정서적 교류가 원활한 지역, 주거마련과 영농기반 시설 마련 및 생활자금 등을 여유 있게 갖고 시작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귀농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부부관계가 농촌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귀농인에게 핵심적인 관계라고 할 때,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잘 아는 것은 귀농인의 결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대상인 귀농인 남녀의 결혼만족도는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나 부부관계가 심각한 갈등에 놓인 부부가 많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결혼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투입

Table 5. Effects of variable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rural migrant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Male						Female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Age	-.01	-.04	-.02	-.05	-.01	-.04	.02	.04	.03	.09	.02	.06
	Education level	.47	.13*	.39	.11*	.39	.11*	.17	.04	.06	.07	.23	.06
	Health level	.79	.19***	.67	.16**	.58	.14*	.50	.13	.35	.09	.41	.11
	Income level	1.05	.25***	.99	.23***	1.03	.24***	.49	.13	.51	.13	.47	.12
	N. of family members	.17	.08	.20	.09	.20	.09	.18	.09	.25	.12	.20	.10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Rural migrant1(UJ)			-.13	-.02	-.07	-.01			-1.30	-.21*	-1.11	-.18
	Rural migrant2(UI)			.19	.03	.13	.02			-1.19	-.19	-1.24	-.19*
	Cost of rural migrants			.14	.09	.11	.07			.30	.20*	.26	.18*
	Preparation period			.26	.12*	.28	.14*			-.06	-.03	.01	.01
	Farm work hours per day			.02	.03	.01	.01			-.02	-.03	-.04	-.05
Family values					-.57	-.14**					-.81	-.20*	
Adjusted R ²		.17		.20		.22		.06		.11		.15	
R ² change				.03		.02*				.05		.04*	
F		12.98***		7.68***		7.78***		1.69		1.72		2.13*	

* p<.05, ** p<.01, *** p<.001.

Dummy variables: Rural migrant type 1 (U-turn: 0; J-turn: 1); Rural migrant type 2 (U-turn: 0; I-turn: 1).

한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이 남성의 경우는 22%, 여성의 경우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 귀농인의 경우 더 그렇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설명 변수를 찾아내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귀농관련 특성과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2012년 사이 전남·북 농촌지역에 배우자를 포함, 가족원과 함께 전입한 후 현재 농사활동을 하는 남녀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21.0으로 기술통계 분석과 교차분석,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위한 독립표본 t-test,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남성귀농인(68.3%)이, 여성귀농인(31.7%)보다 두 배 이상 많이 표집된 가운데 조사 대상 귀농인의 연령은 55세미만이 남성 64.2%, 여성 79.1%로 남녀 귀농인 모두 젊은 층이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남성 43.1%, 여성 29.4%로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남성의 교육수준이 더 높았고 건강수준은 전체적으로 94%가 보통이상으로, 경제수준은 약 80%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여 남녀 귀농인은 스스로의 건강수준과 경제수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하였다. 동거가족원 수는 3~4명이 가장 많은(41.4%) 가운데 2명인 경우도 39.5%로 나타났다. 귀농이전 직업은 남성이 자영업, 관리직, 사무직 순이었고, 여성은 전업주부, 자영업, 사무직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 전업주부 직업군에서 귀농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귀농유형은 대부분의 선행연구(Kim et al. 2004; Kim et al. 2011; Kim 2013)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U-turn이 J-turn이나 I-turn에 비해 가장 많았

고, 이주자금은 1억원이상 투자한 비율이 남성 32.7%, 여성 32.0%였다. 이는 충북 괴산군의 평균 이주자금 1억원과 비교해 볼 때(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전남·북으로 이주한 귀농인의 귀농이주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준비기간은 1년 이상이 남성 51.2%, 여성 48.4%로 나타나 상당기간 귀농준비를 하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귀농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농번기 하루 농사일 시간은 6시간 이상이 남성 80.6%, 여성 75.4%로 대부분의 여성 귀농인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농사일에 적극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 남성과 여성 모두 경작유형 중 밭농사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논농사에 비해 재배기간이 짧아 수익확보가 더 쉽다는 특성이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귀농동기로 남성은 '농촌생활이 좋아서', '퇴직 후 농촌에서 살기 위해', '농업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와 같이 농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여성은 '농촌생활을 좋아해서',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해', '배우자가 원해서'와 같이 농업보다는 다른 동기에서 귀농을 선택했고, 그런 점에서 농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주의 가치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아 전통적인 편으로 나타났고 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결혼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았고, 남성 귀농인의 결혼만족도가 여성 귀농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에 있어 남성이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Gurman & Jacobson 2002; Han & Hyun 2006; Lee 2008)과 그 맥락을 같이 했다. 여성 귀농인의 결혼만족도가 중간점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고되고 힘든 영농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생활이 이들 부부관계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진 귀농인이 보다 가족중심적인 생활을 하며 이는 이들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단계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이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2단계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에 귀농관련 특성변인을 추가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을 통제하고도 귀농관련 특성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설명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2단계 변수에 가족주의 가치관 변수를 추가하여 가족주의 가치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이 결혼만족도에 갖는 설명력은 남성 17%, 여성 6%였다. 남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남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의 설명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귀농인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경제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중요 요인으로 탐색되었던 연구(Park et al., 2007; Park 2008)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귀농인 남성에게 경제적 안정은 이들의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에도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 후 농촌 및 농업에 안정을 이룬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귀농 직후 주거 및 영농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귀농 직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2-3년의 기간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는 점에서 특히 남성 귀농인에게 경제상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수준 역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면서(Park & Nam 2007; Park 2008) 결혼만족도에도 의미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이 높는데(Kim & Nam 1997) 귀농인 남성에게 있어서 건강은 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영농활동은 건강과 체력을 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영농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한 남성 귀농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매우 중요한 변수

가 아닐 수 없다. 안정적인 농촌생활 및 결혼생활에 있어서 건강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이 결혼만족도에 갖는 설명력은 전체 6%에 불과했고 의미 있는 변수는 없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보다 복합적인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 에 귀농관련 특성 변인들을 추가 투입한 모델 II에서는 남성의 경우, 설명력이 3% 증가한 20%, 여성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6% 증가한 11%였다. 남성의 경우 귀농준비기간이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귀농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농촌생활 체험 및 영농에 대한 경험은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을 위한 선행조건이 된다 귀농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 이는 농업, 농촌에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고, 이러한 적응력은 결국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귀농지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귀농유형과 이주자금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귀농유형이 U-turn인 경우, 다른 유형보다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귀농 후 부모님이나 고향 친척과의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농촌생활에서의 적응이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이주자금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이주 자금이 귀농초기 생활비와 주거 및 영농기반 시설 마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확실한 농촌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미래와 현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주어 결국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녀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귀농관련 특성은 남성의 경우 귀농준비 기간이, 여성의 경우 귀농유형과 이주자금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는 귀농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하고, 이주에 충분한 투자자금이 있을 때 이주 후 정착과정도 성공적일 수 있어 결국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귀농인에게 이러한 준비기간

과 이주를 위한 자금준비는 성공적인 농촌생활, 가족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 되었다. 남성과 여성 각각 귀농관련 특성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귀농관련 특성변인이 농촌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이 귀농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모델 II에 가족주의 가치관을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남성이 2% 증가해 22%, 여성은 4% 증가해 15%가 되었다. 남녀 귀농인 모두 결혼만족도에 가족주의 가치관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모든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Kim 2002)가 본 조사대상자인 귀농인에게도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가족의 이익이 개인 및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귀농인일수록 즉,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고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는 가족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귀농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3에서 가족주의가치관이 결혼만족도에 갖는 추가설명력은 남녀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이 증가하면서 농촌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되는 귀농교육은 영농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영농활동에 대해 경험이 없는 도시민이 귀농 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귀농인이 농촌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족지지 특히 부부관계가 중요하고(Lee 1998; Park 2008; Kim 2011; Kim et al. 2011;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1), 이러한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족주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반영해서 귀농관련 교육에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녀 귀농인은 영농기반 시설 마련, 마을주민과의 관계 형성, 생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고되고 힘든 장시간의 농사일 등으로 적지 않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체계와 가족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귀농인에게 가족의 중요성이나 배우자에 대한 이해, 가족생활 및 부부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한다면 이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귀농과정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존 영농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된 귀농교육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대 시킴으로써 남녀 귀농인이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가족관계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귀농관련 특성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 변인에 관한 남녀 귀농인 결혼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색했다. 그 결과 현 귀농현상의 주역인 남녀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귀농관련 특성,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성에 따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귀농인의 가족관계 측면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귀농인이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토대로 농촌사회에 적응을 잘 하게 되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귀농현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남·북 지역에 위치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귀농인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귀농인에 대한 보다 많은 표본으로 귀농인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귀농인 부부관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each S, Katz J, Kim S, Brody GH(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a dyadic model. *J Soc Personal Relat* 20, 355-371
- Cha EK(2002) The labor utilization status and the change prediction of the women farmers.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 Choi KR(1998) A study of variable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of Korean urban family.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Chung HS(1997) Research: Marital Relations: A Critical

- Review and Development of Measurement. *J Korean Economic Assoc* 35(1), 191-204
- Chungbuk Research Institute(2011) Review: the return rural in Chungbuk (6)
- Davanzo JS, Peter AM(1981) Return and other sequences of migration in the unites states. *Demogr* 18(1), 223-276
- Gurman AS, Jacobson NS(2002)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Y: The Guilford Press
- Han HY, Hyun MH(2006)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efficacy=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 Clin Psychol* 125(4), 935-952
- Hawkins JL(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 Marriage Fam* 30, 647-648
- Hyun MN, Chae KM(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e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J Fam Relat* 16(4), 69-85
- Jeong CW(2007) Confusion of the family value orientation and tasks of moral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family ethics. *Korean Soc Moral Ethics Educ* 24, 87-116
- Jin YA(2012)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chinese middle (aged couple's adjustment of marital relationships). Doctor's Thesis, Chonnam University
- Jun CA, Park SY(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J Fam Relat* 31(2), 81-96
- Jung KA, Kim BH(2010) Adult attachment, empathic 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 Hum Underst Course* 31(1), 89-104
- Kim BS(2013) An ecological systematic analysis on the rural society adjustment of urban migrants to rural.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 Kim BS, Lee JH(2013a)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community consciousn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migrant: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J Community Welf* 47, 361-382
- Kim BS, Lee JH(2013b) An ecological systematic analysis on the rural society adjustment of urban migrants to rural. *The Korean Rural Soc* 23(2), 7-48
- Kim CK, Lee HJ, Kim KH, Park MS(2011) The study on successful adjustment of the rural migrant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rural societ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Kim EH(2002) A study on the sex role attitud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dual-earner men and wome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Korean J Family Soc Work* 10, 99-119
- Kim HY(1998) The study on the reality and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rural migrants. *J Farming Econ Assoc Korea* 14(1), 205-223
- Kim JD, Nam CH(1997) An analysis on determined of life satisfaction index of the elderly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e* 23(2), 173-192
- Kim JH(1999) U-turn farmers' source and use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Kim JS(2009) What can local governments do to help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J Agricul Ext Community Develop* 16(3), 533-556
- Kim JS(2011) The policy directions and the task for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J Agricul Ext Community Develop* 18(2), 5-27
- Kim KS(2002) A study on the middle-aged couples' care-giving burden and related variables. *J Korea Geron Soc* 11, 63-86
- Kim MJ(1985) A study on the changes of family values and marital satisfaction. *J Asian Woman* 24, 139-166
- Kim SS, Cheng JW, Lim HB, Koh WM, Lee S(2004) Direction of program development for supporting u-turn farmers' rural settlement. *J Agricul Ext Community Develop* 11(1), 53-65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12) Review: benefit analysis of the rural migrants phenomenon
- Lee DW(1998) Rural adaptation and related variables of rural migra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HG(2004) A review study on the impact of divorce upon children's well-being. *J Korean Psychol.* 10, 47-53
- Lee HG, Lee JY(2004)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women in rural area. *J Family Relat* 9(2), 71-91
- Lee SJ(2010) A study on the for stable settlement return migration.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 Lee SY(2008) Effects on adult attachment on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eeking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Lim CH(2012) The family strengths and adjustment to rural life of family returning to rural community before retirement in old age. *J Family Relat* 16(4), 201-232
- Lim HY(1999) Urban-rural return migrants' adaptation and welfare: a study on migrants in chonnam province. Master's Thesis, Kwangju University
- Litzinger S, Gordon KC(2005)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 Sex Marital Ther* 31, 409-424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2012) The research on the rural migrants in Kore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2013) The research on the rural migrants in Kore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2015) The research on the rural migrants in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05) The research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10) The research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N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re JG(1971) Mexican americans and cities: a study in migration and the case of informal resources. *Int Migr Rev* 5, 293-294
- Oh kh(1997) Communication style, communication in the family & marital satisfaction. *J Korean Home Econ Assoc* 15(4), 201-220
- Park EK(2008) The study of the satisfaction on the rural migrant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Park GJ(2006) The study of migration preparation and adaptation to rural area of returning farmer after retirement.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 Park GJ, Kim YH, Park JY, Yoon SD(2007) The study of migration preparation and adaptation to rural area of returning farmer after retirement. *J Korean Home Econ Assoc* 45(1), 9-21
- Park KS(1993) A study o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women (focused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y perceive). *J Korean Home Econ Assoc* 31(1), 121-135
- Park SH, Choi YW(2014) Review: factors for city people's to rural areas and its impacts on Korean rural society and economy. *Korea Rural Econo Institute* 718, 1-141
- Rice PF(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 Seo SH(1998)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ncepts of filial piety. *J Korean Geron Soc* 18(3), 142-154
- Statistics Korea(2010) Marital satisfaction of the adult in Korea
- Suh GS, Byun JM(2000) Development of long and short-run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ers. *J Agricul Ext Community Develop* 7(1), 137-153
- Sung JH(2013) Returned family: not returned women. *Korean Rural Sociol Soc* 23(2), 91-138
- Sung JI, Kim SA(2012) The status and policy on the return-farm & return-rural of citizens: Korea Rural Econo Institute
- Woo JH(1997) The study for adaptation process and the reason on the return in hometown. *J Korean Assoc Reg Geographers* 3(1), 99-113
- Yang SM(1996) A study on farm woman's stress in productive activity. Master's Thesis, Mokpo University
- Yang SM, Yoo YJ(2002) Expectation,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differences of the spouse role and their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rural couples. *J Family Relat* 7(1), 75-91
- Yang SM(2003)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elf-esteem, couple problem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couples. *J Family Relat* 8(3), 31-49